

번호 02-1

제 목	국 문	일부 성인 남자의 금연행위와 관련된 요인 분석			
	영 문	Factors associated with influencing smoking cessation in Korea adult	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홍현숙, 이강숙, 한지선,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			
	영 문	Hong Hyun-Sook, Lee Kang-Sook, Han Ji Seon,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			
분 야	보건관리 (○) 역 학 () 환 경 ()	발 표 자	일반회원 (○) 전 공 의 ()	발표 형식	구 연 (○) 포스터 ()
	진행 상황 연구완료 (○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흡연은 각종 암, 관상동맥질환 사망에 기여하며, 뇌졸중 및 위궤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서 가장 변형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일반적으로 담배 한 개피를 흡연하였을 때 평균 5.5분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추정하며, 15세에 흡연을 하면 평균 8년의 수명이, 25세에 시작하면 4년의 수명이 감소한다고 한다.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75%를 넘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.</p> <p>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전략을 위하여 강화·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함이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본 연구 대상은 서울시 일개 대학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비흡연자, 과거흡연자, 흡연자로 나누어 다음을 4점 척도로 알아보았다.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나 상태에 대한 인지도로써 폐암이나 심장질환의 가능성, 구취, 집중력 감소 등 흡연으로 유발되는 질병의 심각성으로서 폐암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,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등을 알아보았으며, 금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금연의 장애요인, 실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매스컴이나 광고 및 자기 효능에 대한 32문항이다.</p> <p>통계분석은 세 군간의 차이를 보기위해 ANOVA 시행하였고, 흡연자에 대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여 흡연에 미치는 요인을 odds ratio 로 나타내었다.</p>					

3. 연구결과

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에 대한 인지도, 그 질병의 심각성 및 금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총점이 비흡연자, 과거흡연자, 흡연자 순으로 나타났으며, 비흡연자와 과거흡연자와의 차이는 없었다. 금연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흡연자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,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는 항목이 가장 높았다. 그러나 체중증가에 대한 것은 과거흡연자가 가장 높았다. 금연을 유도하는 동기요인의 수용성에 대한 항목과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과거흡연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금연에 대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의 결과는 대학교육 이상의 교육정도가 1.85(1.26-2.74),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감수성이 1.30(1.03-3.25), 심각성은 1.29(1.19-1.39), 금연에 대한 이득은 1.21(1.16-1.27), 장애요인은 0.78(0.74-0.83), 인지도는 1.21(1.12-1.30),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1.70(1.56-1.85)로서 교육수준과 금연에 대한 감수성, 심각성, 이득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요인이 낮을수록 금연을 더 잘할 수 있음으로 나타났다.

4. 고찰

본 연구를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인식도와 심각성 및 금연으로 인한 이득이 과거흡연자나 비흡연자에 비하여 흡연자에서 유의하게 낮아 이는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금연 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.